www.hub4u.or.kr

더 큰 세상 함께 사는 미래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미래

online newsletter

탈북청소년들이 더 큰 세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함께 합니다.

2016 Vol. 22 | summ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기획기사 •• 02
6년 전에 호프(HOPE)를 알았었다면…

칼럼 •• 06
탈북학생교육 거점학교는 꿈을 그리는 학교

인터뷰 •• 09/13
1. 탈북교사로서 내가 설 자리
2. 무지개를 닮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기고문 •• 16
통일징검다리로 어울리는 남북학생

센터활동소식 •• 19

센터발간자료 •• 21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online newsletter
2016 Vol. 22 | summer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6년 전에 **호프(HOPE)**를 알았었다면…

호프(HOPE) 제5기 오리엔테이션 스케치

● **김성원** | 온라인 <유코리아뉴스> 계간 · <통일코리아> 편집장

"나의 인생에 한 획을 긋는 프로그램이었다."
"한 사람을 얻었어."
"정말 재미있었어. 내년에 또 보자."

지난 5월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의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HOPE' 5기 오리엔테이션. 이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은 HOPE 5기가 끝나고 나서의 소감을 과거형으로 적어보라는 말에 저마다 대감을 풀어놨다. 자신만의 재능을 확인하고 꿈을 펼칠 수 있었던 10개월간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 획을 그을 거라는 기대감이 얼굴과 말에서 그대로 배어났다.

이번 'HOPE' 프로그램 5기에는 21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디자인·미술·인문학·요리·미용·일본어·중국어·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재능기부자들이 멘토로 참여했다. 참석자들 중에는 부산, 창원 등 먼 곳에서 새벽차를 타고 올라온 학생 및 학부모들도 있었다.

5기 HOPE 오리엔테이션은 사업 설명으로 시작하여 멘토(교사)-멘티(학생) 소개, 각 집단별 간담회, 진로 탐색 활동, 멘토-멘티 결연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학생들 모임을 가봤다.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안경식 연구원이 학생들이 앞으로 숙지해야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한참 설명을 하고 질문을 했지만 학생들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안연구원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치즈 든 소시지'. 마침내 조용하던 학생들이 저마다 "저요! 저요!" 하며 손을 들었다.

'HOPE'가 좋아하는 학생 유형

안연구원이 질문을 던졌다. "다음 중 안경식 선생님이 좋아하는 HOPE 학생 유형은? 1번 자신감이 넘치는 학생, 2번 자주 질문하는 학생, 3번 약속을 잘 지키는 학생" 좀 헷갈릴 법도 한데 학생들은 모두가 '2번'이라고 답을 했다. 안연구원은 "정답은 1, 2, 3번 모두"라며 "HOPE 5기는 자신감이 넘치고, 질문도 자주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학생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학부모 모임에 들어갔다. 학생들 모임과 달리

사뭇 진지한 분위기다. 10여 명의 학부모들이 진로상담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쫑긋 세운 채 듣고 있었다. "우리 애는 중3인데 항공학교에 가고 싶어해요. 그런데 성적이 뛰어나든지 학교 추천을 받아야하든지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한 학부모의 말에 HOPE 진로상담교사 이돈집 선생님은 탈북학생이나 부모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줬다. "북한 출신 학생들은 항공학교 기숙사비가 무료입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능이 있다면 일반고보다 특성화고에 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잘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가 걱정이 됐는지 재차 선생님께 자녀 문제를 물었다. "우리 아이가 손재주도 있고 북한 출신이니까 항공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을까요?" 그러자 이 교사는 "아마 지금까지는 북한 출신이 항공학교에 입학한 경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겠지요. 올해 처음 북한 출신 교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 중에도 중국 출신이 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꿈에 도전하라는 뜻으로 들렸다. 그러자 다른 학부모가 대다수 탈북자들이 공감할 만한 가슴에 있던 얘기를 꺼냈다. "남한 사람이 오히려 필리핀이나 베트남 사람보다 탈북자를 덜 취급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따지듯 한탄하는 학부모의 얘기를 듣고 이 교사는 다음과 같이 받아줬다. "탈북대학생 100명 중에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탈북 중고생을 가르칠 수 있는 탈북대학생은 10명도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탈북대학생은 과외 알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갔을 때 대학 나온 사람도 처음엔 화장실, 음식점 청소하면서 그 후세대부터 미국인으로 행세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여년 정도 지켜봤더니 탈북 부모가 성실하게 사는 집안은 아이도 처음엔 힘들어하지만 결국 잘 지내는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지구"

진지한 이 교사의 설명에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서 멘토-멘티 결연 및 진로탐색의 시간이 이어졌는데, 이 시간은 진로상담 전문가인 정민규 코치가 담당했다. 정 코치가 다음과 같은 말로 운을 뗐다. "한 사람은 하나의 지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몇 개의 지구가 있습니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은 그만큼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게 뭔가요?"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수학문제 풀기 등 다양한 답이 돌아왔다.

정 코치는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는 데 나의 미래가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저는 다양한 게 모여 있는 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외국에 가면 꼭 시장을 갑니다. 저는 대학에서 중어중문과에 다녔습

니다. 그런데 중국어가 아닌 중국어 문학을 배우더라구요. 흥미와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갈 때, 우리 학교에 관광학과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수업을 좀 들었는데 인사동도 가고 롯데월드 가서 리포트도 쓰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양한 게 좋습니다. 스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걸 알면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어진 멘토-멘티-학부모 모임에서는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각자의 소개가 있었다. 한 멘토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은 요리"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귀농인데, 귀농 준비하면서 학생들 가르친 게 벌써 20년이다. 그 학생들이 결혼도 해서 내려와 농촌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어머니는 "하루 15시간씩 일하는데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다"며 할 말을 잃은 채 눈물을 보였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무언의 박수로 어머니를 격려했다. 살벌한 경쟁, 경쟁에서의 승리와 처절한 패배가 아닌 서로간의 격려와 배려, 응원이 결국 각 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리라. 한 학생이 불쑥 "통역관, 사회복지사, 배드민턴 선수가 되고 싶다"고 하자 옆에 있던 어머니가 "한 가지만 해야지... 우리 애는 욕심이 너무 많다"며 안타까운 듯 말했다. 정 코치가 "어떤 베드민턴 선수가 되고 싶나?"라고 묻자 그 학생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베드민턴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결국 그 꿈을 현실이 되게 하는 비법이 아닐까? 꽃이 시들지 않고 예쁜 꽃 되게 하는 방법이 그저 '물주기'이듯이 말이다.

"계주하는 화가가 될래요."

다음은 한 여학생과 정 코치가 주고받은 대화다.

"저는 화가, 계주선수 되고 싶어요."
"그 중에 어느 것부터 먼저 하고 싶어요?"
"화가부터 한 다음 계주를 하고 싶어요."
"어떤 화가가 되고 싶나요?"
"계주하는 화가, 개성 많은 화가가 되고 싶어요."
"계주가 왜 좋은가요?"
"앞 사람을 제치고 나가는 게 좋아요."

이번 HOPE 5기에 참여한 멘토 중엔 일본인도 있었다. 쿠로시마 요시코. 10년 전 한국에 와서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어를 배우고 싶었다는 멘티 학생은 "언젠가부터 일본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게 생겼다. 일본에 꼭 가고 싶어서 일본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일본 현지 선생님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며 놀라워했다.

이 학생의 어머니는 "2010년에 아이 둘을 데리고 탈북했다.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가르치기 위해 남한에 왔는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아이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했다.

"6년 전에 HOPE를 알았었다면..."

이번에 멘토로 참여한 김형렬 교수는 부천대 호텔외식조리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가 이번에 HOPE 멘토로 참여하게 된 것은 특별한 경험 때문이다. 6년 전, 부천대에 탈북학생이 한 명 입학했었는데 잘 적응을 못하고 그만 중도 탈락하고 만 것이다. 당시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미안했는데 HOPE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고 이번에 멘토로 참여한 것이다. 김 교수는 "그동안 늘 빚진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게 됐다"며 "앞으로 멘티를 학교로 불러서 본인이 배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접하게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런 멘토와 멘티들에게 주는 격려사에서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은 "전문가들이 재능을 기부하면서 멘토 역할을 해주시고, 학생들은 멘티로서 훌륭한 분들을 만나서 삶에 대해 같이 공유하고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이런 것은 학생들에겐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역시 멘토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세대 대학생 리더 멘토링 사업에서 멘토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 대학생들이 자신에게 멘토 신청을 하면 본인이 직접 면접해서 멘티를 뽑는데, 올해엔 8명을 뽑았고, 지난달엔 이 멘티들과 관악산 둘레길을 걸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요즘엔 주말을 멘티들한테 다 뺏긴 것 같다. 그만큼 멘티들과 만나는 게 즐겁고 보람되기 때문"이라며 활짝 웃었다.

HOPE 5기는 5월 21일 OT를 시작으로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매월 두 차례 이상 멘토-멘티 만남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학생들에겐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재능기부자에겐 새로운 삶의 보람을 안겨주고 있다. 사회면 기사로 가끔 등장하는 탈북학생들의 교육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HOPE엔 지금까지 1기 17명, 2기 16명, 3기 10명, 4기 23명, 이번 5기 21명 등 총 100명 가까운 탈북학생들이 참여했다.

online newsletter
2016 Vol. 22 | summer

탈북학생교육 거점학교는 **꿈을 그리는 학교**

● **서정숙** | 차동초등학교 교사

중국에서 라오스, 베트남,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 **'먼저 온 미래'**[1]가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한족 아버지와 북한이탈주민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생의 어머니는 먼저 온 미래에게 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남편은 두고 아이만 데리고 목숨을 건 사투의 길을 떠났습니다. 한국에 와서 정착지 아파트에 거주하기 시작한 후, 먼저 온 미래는 한 달 동안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딸이 잘못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상담사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잘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찾아보게 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있는 학교보다 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는 **특별한 학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이런 특별한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요? 이런 학교를 무엇이라 불러야 일반 사람들이 이해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에 이런 특별한 학교가 필요한가요? 이런 특별한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 활동을 펼쳐야 할까요?

전국에 2,500여명에 달하는 탈북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 50% 이상은 나홀로 탈북학생[2] 인채로 학교에 다닙니다. 모든 학교에 탈북학생 업무담당교사는 있습니다.(다문화 담당교사가 탈북학생 업무를 함께 보는 학교가 더 많습니다. 더 심한 경우 다문화탈북은 업무분장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나홀로 탈북학생인 학교에서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을 지도하는 업무담당교사와 탈북학생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탈북학생 관련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낍니다. 업무에 대해 물어볼 동료교사가 없는 환경과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학생과 학교 활동에 협조적이지 않은 학부모, 게다가 신변보호문제 까지... 탈북학생을 위한 멘토링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럴 때 물어보고 싶은 사람 또는 학교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런 학교가 탈북학생교육 거점학교입니다.

탈북학생교육 거점학교? 몇 번을 불러봐야 입 속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더 좋은 이름 없을까요?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지난 5년간 교육 현장에

1) 탈북청소년을 통일의 주역으로 바로보는 관점에서 붙여진 호칭
2) 2015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탈북학생 1~5명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9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는 다양한 이름들이 생겼습니다. 다문화중심학교, 다문화중점학교, 다문화거점학교, 다문화특성화학교, 글로벌선도학교, 글로벌거점학교 등입니다. 어떤 학교는 1년 만에 이름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학생교육 거점학교로 불리는 이유는 많은 이름 중 그나마 그 이름이 일반인에게 이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탈북학생교육 거점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관내는 물론 도내까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탈북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 우리 지역에 이런 학교가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유관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올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은 탈북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활동으로 바꿔서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에는 이런 학교가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말할 겁니다. 아니 필요합니다. 2011년부터 탈북학생을 담임으로 지도하면서, 5년째 탈북학생 관련 업무를 보면서, 4년째 탈북학부모 업무를 보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학교라고 생각했습니다.

2011년에 제가 처음 만난 탈북학생은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중국의 학교, 한국의 삼죽초등학교[3], 서울의 어느 공립학교, 서울의 어느 대안시설을 다니다가 차동초에 왔습니다. 그동안 네 학교를 다니면서 엄마와 학생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입학 상담을 하면서 각 학교에서 겪었던 대표적인 아픈 추억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탈북학생은 네 번을 겪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다닌 후 아이는 다른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다문화예비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았고, 중국어 원어민교사와 시간이 될 때마다 상담을 했습니다. 담임은 일반학생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집단 상담, 공동체 놀이, 한국과 중국의 상호문화이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전체 환경을 상호 이해가 가능한 환경으로 꾸며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며 그러한 다름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터득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탈북학부모들과 한국출신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학부모연합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탈북학부모가 한국의 일반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같은 엄마 입장으로 털어놓고 수다를 떨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동아리 회원 중 한 탈북학부모는 한국출신 학부모의 소개로 재혼도 했습니다.

3) 하나원 12주 교육기간 동안 다니게 되는 초등학교.

학교에서 일어나는 활동 등을 신문기사로 작성하여 홍보하다보니 관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서산 하나센터, 대한적십자사서산지역협의회, 서산시자원봉사센터, 서산시드림스타트, 서산석림사회복지관,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 대산지방해양항만청, 동서산라이오스클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산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탈북학생 및 학부모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며, 학교는 이런 사업을 받아 탈북학생들과 학교 친구들이 함께 하는 진정한 교육활동으로 재설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이러환 활동을 통해 유관기관 속에서 학교가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입소문이 나면서 탈북학생수가 증가하기 시작했고, 서산지역의 탈북학생들은 대부분 우리 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탈북학생 교육 거점학교는 학교 역량과 환경에 따라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거점학교의 역할이 아닙니다. 관내 학교 중 어느 학교에 탈북학생이 재학 중이며, 각 학교 담당교사가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점학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역량이 더 있는 학교는 도내의 전화 상담을 받아주거나, 심한 경우에는 찾아가는 학교 상담도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활동을 펼치는 많은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기관별 탈북학생 관련 사업을 정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지정된 학교의 역할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탈북학생을 생각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려면 교사들은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니까요.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탈북학생교육 거점학교는 통일 한국의 큰 꿈을 그리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가장 바라는 꿈은 통일이니까요.

탈북교사로서 내가 설 자리

● 최경옥 | 인천동방초등학교 전담코디네이터
● 정서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인터뷰 정리 및 글]

KEDI : 본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저는 몇 년 전에 탈북하여 남편, 두 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살고 있는 최경옥 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천동방초등학교에서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담코디로서 저의 역할과 업무는 학교현장에서 탈북학생의 입학 또는 전입 초기 학교적응 지원, 상담과 사례 관리, 기초학업능력 신장을 위한 보충학습지도, 탈북학생 학부모상담과 가정방문 등 탈북학생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돕는 것입니다.

KEDI : 처음에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나요?

남한에 입국하여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가지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딸이 다니는 장도초등학교 탈북학생 전담코디 선생님이 가정방문을 왔었습니다. 탈북학생 학부모들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학교에서 누가 온다고 하면 별로 반기지 않는 편이어서 저도 거절을 하려다가 제가 전직 교사출신이라 과연 북한 사람이 어떻게 정규학교에 취직하였을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가정방문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상담을 받으면서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저의 남한생활 적응과정에서 전환점을 마련해 준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도초 전담코디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남한 사회의 탈북학생 지원에 대하여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고,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찾아가 본 적도 별로 없고, '학교에서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겠지'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딸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던 저에게 그날의 가정방문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전직 북한교사출신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순간 '바로 이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학교선생님들과 협력하여 성공적으로 적응시킨 경험을 토대로, 당시 2학년이던 딸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학부모들과 같이 풀어나간다면 분명히 좋을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KEDI : 북한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와 한국에서 탈북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북한에서는 교육과 정치가 밀접히 결합되어 있어 모든 학생들을 사상무장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지식을 가르쳤고,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서 조직생활과 학습을 동시에 시켰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사교육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학업관리 등을 학교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절대적인 복종이 있어 학생 지도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탈북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남한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탈북학부모님들의 가정에서의 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학업성적에만 무조건적으로 매달리는 경향으로 인해 정작 학생 개개인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생의 학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북한교육에 익숙한 탈북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학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학생을 지도할 때 어려운 다른 한 가지는 교육이나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학생의 학부모가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신분이 노출되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을 거부하는 탈북학생들의 경우에는 성적 부진 및 교우관계 형성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탈북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이 있는 경우 학부모가 "탈북학생들끼리 하는 거죠? 싫어요!"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매우 안타깝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고학년 탈북학생 한두 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탈북학부모들이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종종 그것이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탈북학부모로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겪어왔던 과정들이고, 그분들이나 제가 다를 바 없는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 적응과정 중 거치는 단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감되는 바가 많아서 저의 경험에 비추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방초등학교에 취직하면서 저는 탈북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의 자녀를 한 번 더 적응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는 의지를 가졌기에 오늘 같이 학교와 학생, 학부모를 연계한 효과적인 지원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가 주최한 탈북학생 지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나아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닌 교육부장관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저의 남다른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KEDI : 탈북학생 교육을 지원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남한교육 이해가 부족한 학부모들에 대한 상담입니다. 교육 열의가 남한학부모들 못지않은 탈북학부모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아이는 때려서라도 공부를 잘 시켜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북한에서는 하루 공부가 끝나도 그날 과제나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를 때에는 담임교원이 그 학생을 저녁까지 남겨서 공부시키곤 합니다. 그러한 방법에 익숙한 탈북학부모들은 "남한선생님들은 왜 북한 선생님들처럼 학생이 이해하고 넘어갈 때까지 가르쳐주지 않는지, 북한선생님들처럼 공부시켜주면 안 되는지" 등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학부모들이 하루빨리 남한 교육, 나아가서 남한 사회에 대해 이해하

도록 돕기 위해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담당자인 저 자신부터 남한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탈북학부모 상담과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탈북학생 교육지원에서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일부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꼭 필요한 교육활동인 것을 알면서도 탈북학생 대상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거나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 집행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탈북학생과 남한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을 정하여 진행하면 탈북학생의 학교적응 및 교우관계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탈북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친한 친구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조건을 제시해준다면, 남북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참여를 꺼리는 학생들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KEDI : 탈북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 '탈북학생 전담 코디네이터 연수'가 도움이 되었나요?

물론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와 남북하나재단이 탈북학생들에 대한 여러 연구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학교현장에서 도움이 되었던 프로그램은 2014년 연수에서 진행된 <직업카드게임> 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탈북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남한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고, 특히 외래어로 된 직업은 더욱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담코디 선생님들 역시 '일러스트레이터', '패션에디터', '파일럿', '스튜어디스', '프로그래머' 라는 생소한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 직업카드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님들에게는 자녀의 진로에 대한, 학생들에게는 미래의 희망 직업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같이 그냥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과 같이 이루기 힘들거나 이해하기 쉬운 직업을 적어 보냈습니다. 남한사회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면서 학교에서 <직업카드게임>을 진행했는데, 다음번 설문에서는 다양한 직업들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인식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KEDI : 혹시 앞으로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연수'에서 보완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나요?

전직 북한교사로서 북한의 교육방법은 잘 알고 있지만 남한의 교육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없어서 남한교육 연수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남한의 교육방법을 비롯하여 교사로서 알아야 할 남한교육의 모든 것에 대한 연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교사로 활동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수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학교현장에 방문하여 수업하는 과정도 보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KEDI :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하며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보람을 느낄 때가 여러 측면에서 많기는 하지만 특히 제일 긍지를 느꼈을 때는 탈북학생이 성적, 학교생활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여 학급회장으로 선출되자, 담임선생님이 기뻐하면서 "선생님 덕분이에요"라고 해주었을 때입니다. 또한 탈북학부모님이 전화로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공부도, 학교생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였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라고 하실 때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간 학생의 학부모들로부터 "중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처럼 해주실 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안 계셔서 어려운 점이 많다. 선생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시 한 번 느낀다"라며 중학교에 대한 상담을 요구받을 때마다 '내가 우리 탈북학생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때마다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무지개를 닮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 **황수현** | 삼죽초등학교 심리상담교사
● **정서윤**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인터뷰 정리 및 글]

KEDI: **본인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저는 현재 안성시에 있는 삼죽초등학교에서 탈북학생들을 심리상담하고 있는 미술치료사 황수현 입니다.

KEDI: **삼죽초 심리상담사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미술치료사가 된 이후로 항상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치료사나 상담사라면 누구나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좀 많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 정서장애 아동 등 많은 아이들과 만났지만 탈북학생들과는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하게 되는 곳이 조용한 시골 학교라는 것도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담에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답답한 도시에 갇혀서 살다가 삼죽초등학교에서의 생활을 직접 경험해 보니 이곳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는 장소라는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한 감정들을 늘 마주하면, 이야기 나누는 아이들에게도 분명 좋은 영향을 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KEDI : **현재 : 탈북학생들과 어떠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나요?**

탈북학생들과 그림 그리기와 만들기를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부

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최대한 친구처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힘든 이야기들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재료탐색과 언어를 통한 상담 위주로 진행하다가,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에 조금씩 마음을 열 때쯤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게 해줍니다. 보통 상담실로 오게 되면 어떤 것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공간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걸 찾는 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주도적인 학습에 익숙한 남한학생들과 달리, 교사 중심 주입식교육에 익숙한 탈북학생들은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환경에 놓여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탈북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이 스스로 건의한 것들은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북학생이 TV에서 본 로봇을 만들고 싶다거나 퍼즐을 하고 싶다는 등의 막연한 바람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완성도 있거나 멋지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실현시켜 봄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자존감과 자신감, 자기표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은 기수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집단원이 다함께 마음을 맞추어 보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시간에는 늘 팀 이름을 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oo기'라는 하나원 기수번호보다 팀 이름을 부르면 더욱 서로를 친밀하게 느끼고 공동체 의식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첫 시간에 진행하고 있답니다. 집단상담 시간을 통해서 탈북학생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수용하는 방식,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법, 재료를 공평하게 나누어 사용하면서 배려하는 것 등을 연습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에서도 여러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맞추어 가며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늘 즐겁게 참여하고 상담시간을 기다려 주는 우리 친구들이 고맙고 대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KEDI: 앞으로 어떠한 활동들을 더 중점을 둬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특별하게 어느 한 곳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개별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 욕구에 맞는 상담을 계속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한국사회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삶의 목표나 희망이 되어 의욕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탈북학생들이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알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지해 나갈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은 모두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탈북학생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미술 재료를 통해 실현해 봄으로써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상담이라는 것이 하고 싶은 것, 즐거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가겠습니다.

KEDI: 상담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언어적으로 소통하기 어려울 때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처음 삼죽초등학교에서 상담을 시작했을 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다른 남북한의 문화와 언어에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실 열심히 들으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서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삼죽초등학교 탈북학생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출

신 친구들과 소통할 때는 말보다도 미술이 가진 힘에 더 비중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미술치료사인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짧은 중국어 실력으로 부족할 때는 번역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로 계신 박금주 선생님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중국 출신 탈북학생들과의 활동을 통해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그 학생이 본인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이 아이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탈북학생들이 삼죽초등학교에 3개월만 머무르다 정착지로 이동한다는 시간적인 제약이 어려운 점이라기보다 아쉬운 점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성향에 따라 적응하는 것에 더디거나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적응할 때가 되면 졸업해서 정착지로 떠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클 때가 있습니다. 저의 욕심일 수도 있겠지만 상담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짧았던 3개월이라도 상담이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면 정착지에 가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거나 적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은 씨를 뿌리는 작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씨앗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KEDI: 앞으로 센터나 혹은 다른 기관들에게 요청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삼죽초등학교와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따로 요청하고 싶은 부분은 없으나, 아이들에 따라 주 양육자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하나원과 삼죽초등학교의 배려로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만나 뵐 때 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주 양육자와의 상담을 더 자주 할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남한의 학부모님들과 많이 다른 탈북학생 학부모님들의 교육방식을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현실적인 스킬이 포함된 학부모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KEDI: 삼죽초 심리상담사 활동을 하며 언제 보람을 느끼나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 때 대견하기도 하고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생활하면서 아이들의 표정과 목소리, 몸짓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 하던 아이가 "다음 상담은 언제예요?"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하고 싶은 것이 없었던 아이가 "저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당당하게 표현해줄 때, 상담을 즐거워하지 않았던 아이가 "상담 언제해요"라며 관심을 가질 때, 저를 보면 자기 상담시간을 더 늘려주면 안되는지 물어보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늘 행복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눈앞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 아이의 삶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전달했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졸업한 아이들이 가끔씩 소식을 전해줄 때마다 참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집니다. 아직은 휴대폰이 없거나 SNS를 사용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서 다함께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라도 단체 톡을 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짧은 만남이었지만 오래오래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그 웃음과 콧노래를 에너지 삼아 매일 매일을 행복하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통일징검다리로 어울리는 **남북학생**

● **박석동** | 경기 안성 광선초등학교 교감 | 경기 탈북학생맞춤형 수업연구회 회장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탈북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14.4.기준 29%)하고 있다. 특히 안성 지역은 통일부 하나원 아이들의 초기 적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삼죽초등학교'와 '하나둘학교'가 있고, 전환기 교육을 담당하는 '한겨레중고등학교'가 있다. 또한 '안성교육지원청'은 2014년부터 통일축제 등 통일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는 탈북학생들의 초기 적응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을 주도하고 탈북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료를 개발하여 지도할 교육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탈북학생교육에 관심이 많은 유·초·중 교원들과 관련자들이 모여 통일 미래사회를 맞이할 통일징검다리 역할을 하고자 통일징검다리 수업연구회를 운영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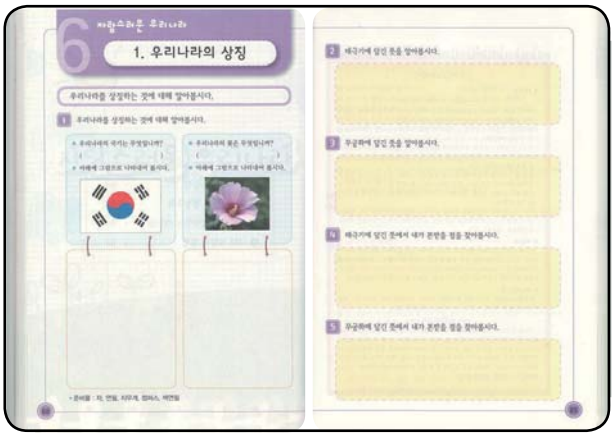
<경기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회원들과 지난해 연구회 운영 일정 및 운영 방향에 대해 협의를 통해 탈북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다. 그 결과 **첫 번째,** 탈북학생 및 한국학생들에게 전문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전문적 지식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두 번째,** 탈북학생들의 적응기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통합교과서를 개정하여 탈북학생들의 초기 적응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탈북학생, 한국학생, 지도교사와의 어울림 체험을 통해 학생간, 교사와 학생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진로 감수성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교육과정과 교육활동 전문가이지만 탈북학생교육 및 이해의 면에서는 다소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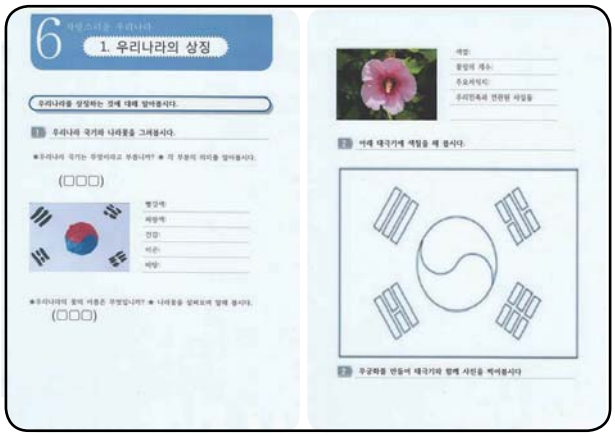
족한 게 현실이다. 이런 선생님들께 탈북학생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문성 신장의 기회 증진 및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론중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문가 초청 연수활동(2회)과 워크숍(1회)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탈북학생 지도 통합교과서가 2012년에 발행되어 현재 저·중·고 3단계로 구분하여 발행 지도되고 있지만 2012년에 제작된 자료가 현재의 생활실정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다수 있어 현 사회 실정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더욱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통합교과서 개정작업이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한 번에 될 수 없으므로 탈북학생 지도교사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 시점에서 난이도 조절이 요구되는 중학년 통합교과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연구회 분과 협의회(2회), 전문가 초청 컨설팅(1회)에 걸쳐 개정작업을 하였으며 개정 작업한 교재를 탈북학생들에게 맞춰 보완할 내용을 수정하여 탈북학생 정착지 학교인 삼죽초등학교에 제공하였다.

탈북학생들이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고, 미래 통일 한국에서 리더로 성장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돕기 위해 남한의 친구들과 멘토·멘티가 되어 재미있는 진로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고 자기 미래를 설계하여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이에 탈북학생을 초청하여 자매결연 및 체육대회, 캠프활동을 실시하며 또래 친구들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회를 바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초·중·고 학교 급별 연계 진로 체험(2회), 및 문화체험(2회)를 통해 탈북학생들에게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는 마음을 갖도록 하였다.



개정 전 교과서



개정 후 교과서

2016학년도에 연구회는 전년도 활동 및 정책연구학교 운영 성과를 토대로 신규지정 정책연구 학교 활동 지원, 이론적으로 통일교육, 탈북학생 교육의 뒤를 받쳐줄 현장 연수 실시, 전년도 만족도가 제일 높았던 진로체험 활동을 운영하고자 한다. 연구회의 2016학년도 활동계획은 아래와 같다.

연구회 2016학년도 활동계획

시기(월)	영역	연구 활동 및 내용
4	연구회 협의	• 연구회 운영 방향 및 계획 공유 • 분과별 과제 실행 계획 협의
5	연구회 협의 및 전문가초청 워크숍	• 선행 연구 분석 • 탈북학생 이해 교육 • 설문조사 및 분석(탈북학생 기초학력 및 진로 강화 수업 요구사항 분석) • 워크숍-탈북학생교육 전문가 초청 연수 실시
6	연구회 협의	• 탈북학생 기초 학력 수업 및 진로역량 강화 수업 사례수집 및 분석 • 학년별 교육과정 안 수업구성요소 분석 • 탈북학생 기초학력 수업 및 진로역량 강화 수업안 초안 작성
7	수업자료 개발 및 적용	• 지도자료 개발(컨설팅 실시) • 지도자료 분석/보완 • 수업자료 현장 수업 적용 • 협의회- 현장 적용 수업 분석/보완
8	워크숍	• 워크숍- 하반기 연구회 운영 방향 및 연구회 활동 내용 중간 발표
9	연구회 협의	• 진로역량강화 체험 프로그램 구안 • 안성교육지원청 주최 통일축제 지원
10	진로 체험활동	• 탈북학생과 교사 멘토링을 통한 자기이해 및 자아존중감 증진 • 탈북학생과 한국학생 또래 멘토링을 통한 진로 감수성 자극 • 탈북학생과 한국학생 협력체험학습을 통한 진로 이해 • 안성교육지원청 주최 통일축제 체험
11	연구회 협의	• 일반화자료 분석 및 검증
12	연구회 협의	• 최종 보고서 작성 • 전국 연합 성과보고회 참석
2	연구회 협의	• 워크숍-연구회 활동 성과 종합 및 연구회 운영 결과 공유

센터활동소식

2016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운영진 워크숍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하여 8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정한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도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운영 계획 공유를 목적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및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관계자가 모여 수업연구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연구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상호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 행사명 : 2016학년도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운영진 워크숍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13:30~17:30
- 장 소 : 용산역 ITX회의실
- 대 상 : 탈북학생 맞춤형 수업연구회 관계자
- 내 용 : 수업연구회별 운영 계획 발표 및 상호컨설팅
- 문 의 : 학교지원팀 정재훈 (02-3460-0689 / herb@kedi.re.kr)

2016년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학교 관리자 연수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2016년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학교 관리자 연수」를 2016년 3월 31일(목)에 개최하였습니다. 동 연수를 통해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학교 관리자들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공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수는 관련 학교 관계자들의 상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현황 및 전담코디네이터 배치학교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정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의 기조강연 후 서울은정초등학교 장옥화 교장선생님과 울신구로초등학교의 이유호 교장선생님의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우수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후에는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사업 내실화를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 2016학년도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학교 관리자 연수
- 주 최 : 교육부
- 주 관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일 시 : 2016년 3월 31일(목) 14:00~17:00
- 장 소 :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
- 대 상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학교 관리자
- 내 용 : 탈북학생 전담코디네이터 배치 학교 관리자의 역할,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우수사례 등
- 문 의 : 학교지원팀 정재훈 (02-3460-0689 / herb@kedi.re.kr)

2016년 제5기 HOPE 오리엔테이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HOP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각 분야에서 잠재능력과 재능을 보유하고 있는

탈북학생 21명(HOPE 5기)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번 HOPE 5기 오리엔테이션에는 HOPE 5기 학생, 학부모, 멘토교사, 진로지도 교사, 교육부 및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멘토교사와 진로지도 교사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하였고, 학생과 학부모, 멘토교사들을 위한 사례공유 시간과 학생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 행사명 : 제5기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16년 5월 21일(토)
-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대 상 : HOPE 5기 학생, 학부모, 멘토교사
- 내 용 : 제5기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HOPE)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문 의 : 교수학습지원팀 안경식 (02-3460-0617 / toughaks@kedi.re.kr)

2016학년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계획 공유를 위한 협의회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는 교육부 요청 교육감 지정 연구학교로서 현재 10개교가 2016년 3월 1일부터 2개년에 걸쳐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정책연구학교는 학교 기반의 탈북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산을 목적으로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선도학교 및 거점학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정책연구학교 운영을 위해 2016년 3월 29일 「2016학년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계획 공유를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었습니다.

10개의 정책연구학교, 2개의 중점학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들은 2016학년도 정책연구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 행사명 : 2016학년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계획 공유를 위한 협의회
- 일 시 : 2016년 3월 29일(화), 12:00~17:00
- 장 소 : LW컨벤션
- 내 용 : 정책연구학교 운영 방향 안내 / 연구학교 연구주제 및 향후 일정 안내 / 학교별 운영계획 발표 및 토론
- 문 의 : 교수학습지원팀 김유연 (02-3460-8966 / youyeon@kedi.re.kr)

2016학년도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계획 내실화를 위하여 4월 한 달 동안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학교별 연구 주제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관계자가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정책연구학교 운영사업 초기 진단 및 계획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컨설팅이 개별 학교 현장 방문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별 교육 여건, 탈북학생 지도 현황, 연구학교 운영의 추진 내용 및 어려움 등을 공유하는 가운데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센터발간자료

탈북학생 지도 교사용 매뉴얼(개정판 2016)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소장 김정원)는 탈북학생 지도 교사를 위하여 탈북학생 지도 교사용 매뉴얼 "함께 만들어요! 하나된 세상"(2016 개정판)을 펴냈습니다.

이 매뉴얼은 학교에서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를 위한 안내서로 탈북학생에 대한 사전경험이나 배경 지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선생님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정보와 다양한 세부 사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 자료명 : 함께 만들어요! 하나된 세상! 탈북학생 지도 교사용 매뉴얼
- 대 상 : 탈북학생 지도 교원 외
- 내 용 : 탈북학생 이해, 학적관리, 생활지도, 학습지도 외
- 문 의 : 학교지원팀 정재훈 (02-3460-0689 / herb@kedi.re.kr)

2016년 탈북학생 멘토링 지도 사례집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학생 멘토링 사례집(2016년)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학교 현장에서 탈북학생을 지도하시는 여러 선생님들의 다양한 지도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더욱 발전된 멘토링 활동을 하는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탈북학생 개별 지도 사례와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 사례, 도시 학교와 농촌 학교의 사례,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와 탈북학생이 한두 명 재학하는 학교의 사례, 중국 출생 학생과 북한 출생 학생 지도 사례 등 다양한 지도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 자료명 : 탈북학생 멘토링 지도사례집(2016년)
- 대 상 : 탈북학생 멘토링 담당교원 외
- 내 용 : 탈북학생 멘토링 지도 사례 및 탈북학생 동아리 운영 사례
- 문 의 : 학교지원팀 정재훈 (02-3460-0689 / herb@kedi.re.kr)

탈북학생 학부모 교육자료

학부모 교육자료 (초등)

학부모 교육자료 (중등)

우리 곁에 온 탈북학생이 좋은 교육을 받으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탈북학생 학부모는 북한과 다른 한국 사회와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학생 학부모의 한국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탈북학생 재학교에서 탈북학생 학부모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간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강의안(지도안)', '학습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사례', '학부모교육 관련 계획 문서(서식)'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료명 : 탈북학생 학부모 교육자료 (초등학교용, 중고등학교용)
- 대 상 : 탈북학생 지도 교원
- 내 용 : 강의안(지도안), 학습지, 가정통신문,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사례 등
- 문 의 : 학교지원팀 정재훈 (02-3460-0689 / herb@kedi.re.kr)

탈북학생 기초학력 진단평가 사용자메뉴얼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학생의 학력수준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맞춤형 학습지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존 탈북학생 기초학습능력 진단평가지와 사용자매뉴얼(초등학생용, 중학생용)을 변화된 교육과정에 맞게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탈북학생 기초학력 진단평는 초등학교 국어·수학 각 3단계(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국어·수학 각 3단계(1학년, 2학년, 3학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자료명 : 탈북학생 기초학력 진단평가, 사용자매뉴얼
- 대 상 :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지도가 필요한 탈북학생
- 내 용 : 개념설명, 남북한용어비교, 학습 기본문제 풀이로 구성
- 문 의 : 교수학습지원팀 안경식 (02-3460-0617 / toughaks@kedi.re.kr)

<꿈이 자라는 초등수학> 교재 발간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서는 탈북학생들이 단기간 초등학교 수학의 핵심기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꿈이 자라는 초등수학> 보충교재를 변화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하였습니다.

<꿈이 자라는 초등수학>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6권의 교재로 개발되었으며, 각 학년마다 초등수학A, 초등수학B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등수학A는 수와 연산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초등수학B는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과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료명 : 꿈이 자라는 초등수학 1~6학년
- 대 상 :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지도가 필요한 탈북학생
- 내 용 : 개념설명, 남북한용어비교, 학습 기본문제 풀이로 구성
- 문 의 : 교수학습지원팀 안경식 (02-3460-0617 / toughaks@kedi.re.kr)

『2016 가을호』 통권 22호

발 행 일	2016년 07월 20일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발 행 인	김재춘
제 작	디자인펌킨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바우뫼로 1길 35 (우:06762)
홈페이지	www.hub4u.or.kr
구독문의	02-3460-8966 / youyeon@kedi.re.kr